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장병완 후보와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 간 1대1 대결 구도다. 양 후보를 만나 필승전략과 주요공약, 강점 등을 들어봤다. 아울러 알파벳 A부터 Z까지 지표를 통해 양 후보의 모든 것을 살펴본다.

"33년 예산전문가…남구 발전 올인"

■민주당 장병완

-남구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재정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재원을 많이 끌어와야 한다. 아울러 남구를 문화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CT연구원 유치 등 문화경제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남구의 상업지역 중심인 백운 광장 활성화도 시급한 현안이다.

-당내 다른 경선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이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남구에서 선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지인도 많지 않고, 구민들도 생소하게 여기는 분이 많다. 하지만, 겸허한 자세로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뵈며 정성껏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공직생활 33년을 경제부처에서 예산을 다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지낸 경력과 국정경험을 알게 되면 남구 주민들께서도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남구는 인재를 키우는 자랑스런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선거일까지 필승전략은.

▲이번 선거는 남구 발전이냐, 정치투쟁이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고 본다. 지금은 낡은 구호를 외치고, 투쟁의 논리로 무장하는 것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라고 생각한다. 광주시민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 요구한 메시지는 '잘사는 남구,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문제들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절실한 민생의 문제이다. 남구 주민의 요구에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진실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만이 최상의 전략이라 생각된다. 창조적 리더인 강운태 광주시장, 패기 있는 최영호 남구청장과 장병완이 함께 '남구 발전의 황금 트리오'가 될 것이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개인적인 관심 분야와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둘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재 차출 케이스로 공천을 받았다.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예산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정권 차원의 지역 편중 예산을 이 지역으로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구와 광주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발 벗고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반 서민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재분배에도 노력하겠다.

-주요 공약 세 가지를 꼽는다면.

▲'곱하기 둘(2)'의 정치를 하겠다. 예산 두 배, 섬김 두 배, 정치력 두 배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가장 먼저 남구를 자부심 넘치는 '교육중심도시'로 만들겠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중심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치안도 확보하겠다.

또한, 광주의 주력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자동차와 가전산업의 부품산업을 육성지원하고 R&D 특구지정과 활성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광산업 유망분야인 LED산업의 혁신 클러스터 육성도 지원하겠다. 광주와 남구의 경제도 꼭 살릴 것이다. 문화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서 문화산업을 유치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차질 없이 이전하도록 하겠다. 백운광장 활성화 등 도심재생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선도산업을 유치하겠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남구와 광주 전남 발전을 견인할 능력이 있는 예산 전문가라고 자평한다. 남구 예산확보에서 어떤 의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파탄지경에 이른 남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산이다. 공직생활 33년을 예산분야에서 보냈다. 예산 담당자들 대부분이 후배들이다. 전국의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전국에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사실 정부 각 부처에 있는 후배들이 저의 국회 등원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남구 발전에 반드시 득이 될 것이다. 예산은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라면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적 네트워크 풍부 예산 확보 자신감

백운광장 활성화 등 도심재생사업 추진

"진보 외길…서민 이익 대변하겠다"

■민노당 오병윤

-남구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남구의 가장 큰 현안은 공무원 봉급도 주기 힘들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정자립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어르신·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다.

-민주당과 비 민주당 연대 후보로 일대일 구도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필승 선거전략은.

▲광주에서 비 민주당 연대를 통해 일대일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가 뭉쳤다. 초유의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다. 이미 야4당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동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단일화 이후 지지율도 앞서고 있다. 민주당 일색 정치에서 이제 단일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전국에 보여줄 것이다. 이번 선거는 야권연대 세력과 야권분열 세력과의 대결이다.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 2012년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심, 광주 민주개혁세력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선거를 치루겠다.

-이번 7·28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구에서 야권단일후보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만으로는 정권탈환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착각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이 좋아서, 예뻐서가 아니라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였음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2012년 정권탈환을 위해서는 더 크고 더 단단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광주 시민사회가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광주 남구를 야권연대의 전국적 상징으로 '무공천 지역'으로 만들자고 했지만 이마저 외면했다. 지금은 민주당에게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하다. 광주에서 야4당·시민사회 단일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하고,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곳 광주가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틀 것이라 믿는다. 전국이 광주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걸어온 길과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선거 혁명으로 민주당에 경종 울릴 것

4대강사업 저지·송암산단 개발 추진

▲그 누구보다 광주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기 위해 한 길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구속됐고, 6월항쟁 때는 국민사회자로 이름을 알리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재야운동과 진보정치 운동을 지켜왔고,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 성사에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한 눈 팔지 않고 지역과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광주시장, 국회의원 출마로 오랫동안 진보정치의 꿈을 준비해왔다. 광주는 민주화의 도시다. 남구는 역대 선거에서 그 어느 곳보다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 독재로 회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보수적인 관료가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 의원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한자리 지켜보겠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흉내 내는 의원은 되지 않겠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회귀에 맞서 정권과 맞서야 할 때 견결히 싸울 수 있는 의원이 되겠다.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원직도 내걸겠다. 누가 광주정신을 올곧게 지키는데 헌신했는지, 그리고 계승할 수 있는지 남구 주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믿는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개인적인 관심분야는 무엇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을 저지하고 감세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지역발전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CT연구원이 광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아울러 남구에 송암산단에 있는 CGI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요 공약 세 가지만 꼽는다면.

▲국민이 모두 반대하는 4대 강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이다. 또한, 낙후된 송암산단을 CGI센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뉴산업타운으로 조성해 잘 사는 남구를 만들겠다. 월산동·백운동 등 구 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대촌과 양과동 일대는 친환경 농업생산기지로 육성할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병완	A~Z로 본 후보자	오병윤
1952년 곡성 출생 용띠	Age(생년월일과 띠)	1957년 화순 출생 닭띠
진실은 통한다	Belief(신념)	사람을 하늘처럼
낙천적, 소탈함, 포용력	Character(성격)	외유내강
지지하고 성원해준 모든 분	Debt(사회적 개인적으로 진 큰 빚)	어머님
서울대 무역학과 졸	Education(학력)	전남대 국어교육과 제적
부인과 1남1녀	Family(가족관계)	부인과 2남1녀
더불어 잘살기 위해 모든것 발휘하자	Goal(인생의 목표)	착하게 살자
매우 양호	Health(건강)	좋다
운동, 공연관람, 친구와 한잔	Interest(취미)	낚시, 바둑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Jackpot(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날 아껴주는 부인을 만난 것
대학 4학년때 아내와	Kiss(첫 키스는 언제 누구와)	31살때 아내와
다른 여자에 눈길 준적 없다고 한 것	Lie(자신이 한 가장 큰 거짓말)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
약 54억(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Money(재산내역)	6290만원
너무 많다	Neighbor(가까운 지인)	고등학교 친구 김선한
'장애인 먼저' 광주운동본부, 천주교	Organization(활동단체나 종교)	기독교
이순신, 김대중, 노무현	Person(존경하는 사람)	전태일, 문익환
진인사 대천명	Quotation(좋아하는 문구)	최선을 다하자
좀 더 많은 책을 읽었더라면…	Regret(후회되는 점)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는 것
테니스, 수영	Specialty(특기 및 장기)	대중연설, 사람들과의 술자리
약1억9천(소득, 재산, 종부세 총괄)	Tax(주민세, 재산세 납부액)	269만2천원
게으름, 불성실	Unpleasant(가장 싫어하는 것)	사람을 깔보는 것
기획력, 추진력, 친화력	Virtue(장점)	집중력
정이 많다	Weakness(단점)	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한다
코골이	X-factor(세간이 모르는 나의 비밀)	튀어나온 엉덩이 꼬리뼈
배낭여행, 에베레스트산 정복	Yearning(가장 그립거나 하고 싶은 것)	가족과 떠나는 긴 여행
나 자신	Zapper(향후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	미래세대